



# “블핑 팬사인회 가고 독도에 집 지어요” 1700조 메타버스 타고 미래로 ‘부르릉’

〈2030년 전망〉

게임업체와 통신사·포털 등 IT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권, 유통업계, 자동차 회사까지 너도나도 메타버스 서비스에 나서면서 메타버스 시장 경쟁이 뜨겁다. 지난해 메타버스 시장이 본격 태동되는 한 해였다면 올해에는 ‘메타버스 실용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2025년 VR/AR(가상·증강현실)로 대표되는 메타버스의 시장규모가 현재보다 6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2019년 455억달러(약 50조원)인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 1조5429억달러(약 17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임업체와 통신사·포털 등 IT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권, 유통업계, 자동차 회사까지 너도나도 메타버스 서비스에 나서면서 메타버스 시장 경쟁이 뜨겁다.

지난해 메타버스 시장이 본격 태동되는 한 해였다면 올해에는 ‘메타버스 실용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2025년 VR/AR(가상·증강현실)로 대표되는 메타버스의 시장규모가 현재보다 6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2019년 455억달러(약 50조원)인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 1조5429억달러(약 17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단어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AR과 VR을 결합시킨 3차원의 가상 세계에서 참여자는 아바타 등을 활용해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글로벌 IT 공통 기업들도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0월 말 온라인 행사를 통해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META)’로 변경하고, 향후 메타버스 회사로 여겨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구글 어스’로 메타버스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메타버스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도 미국의 대표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중국 내 로블록스 권리를 취득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제페토’가 가장 잘 알려진 메타버스 앱으로, 이용자가 2억 명을 넘어섰으며, 이용자의 90%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페토는 YG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해 블랙핑크의 IP를 활용해 ‘블핑하우스’를 제작, 누적 방문자가 1300 만명을 넘어섰다. 또 제페토에서 진행한 블랙핑크 팬 사인회도 4600명이 모였다.

또 국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168억원을 투입, 전 세계 한류 팬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K-메타월드’를 구축하는 등 메타버스 투자에 나선다.

### ◆통신업계, 차별화된 서비스로 메타버스 영역 확대 나서

이동통신사들은 올해에도 차별화된 서비스로 메타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올해 글로벌 80여개국에서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프랜드’를 동시에 런칭할 계획이며, 이프랜드 오컬러스퀘스트 2, PC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

SKT는 ‘이프랜드’ 누적 사용자가 지난해 12월에 450만명을 넘어지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프랜드는 800여종의 아바타 코스튬 소스와 21개 이상의 룬 테마 등을 기반으로 130여명이 같은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MZ세대

KT는 ‘리얼큐브’ 솔루션을 활용해 용산구청과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용산말은 숲 어린이집, 용산구 공동육아 나눔터 등과 메타버스 운동회를 진행했다. 또 KT 그룹의 IT 서비스 전문기업 KTDS는 지난해 12월 학원 교육 전체를 메타버스로 구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투스교육에 구축했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와 아이돌 전용 메타버스 구축에 나서, 올해 국내 최초로 키즈 메타버스를 U+아이들나라 모바일 서비스로 선보인다. 또 유니티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출시 예정인 가상오피스 서비스를 제작하고, 다양한 메타버스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랫폼 기업인 ‘더 샌드박스’에 투자했으며, 위지웍스튜디오와 손잡고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더 샌드박스에 시리즈B 투자사로 참여해 디지털 가상현실 산업에 대한 행보에 힘을 쏟고 있다.

컴투스도 자회사인 위지웍스튜디오와 공동으로 배우 이정재, 정우성이 설립한 아티스트스튜디오 및 아티스트컴퍼니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투자합의를 체결했다. 컴투스는 메타버스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아티스트스튜디오 및 아티스트컴퍼니를 자회사로 둔 신생 법인 아티스트홀딩스에 1050억원을 투자했다.

### ◆금융권, 메타버스로 비대면 새 기회 모색…유통가도 메타버스 이벤트 나서

금융권도 코로나19로 대면 행사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DGB금융그룹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활용한 경영진회의를 시작으로 이프랜드를 활용한 음악회, 스페셜 내사내모임, 최고경영자(CEO)와 MZ세대 직원 간 게더타운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디지털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독도 주민증을 발급받아 땅을 구입한 후 집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NH독도버스’를 오는 3월 1일 선보인다. 이 플랫폼은 금융권 최초의 자체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통가도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제페토’ 내의 기존 쇼핑몰월드를 ‘현대백화점면세점 월드’로 새로 꾸미고 무역센터점 오픈 3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했다.

CU도 제페토에서 매장 3개를 운영 중으로 1호점 CU한강공원점과 2호점 CU제페토교실매점을 선보인 이후 해당 매장 방문자가 5배, 인증샷 수는 8배나 증가했다. 또 GS25는 제페토에 삼각김밥 캐릭터 ‘삼김이’ 왕국을 테마로 하는 전용 맵을 오픈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페이스북, 사명 ‘메타’ 변경… 구글·텐센트, 메타버스에 투자 SKT ‘이프랜드’ 80개국 동시 론칭, 누적사용자 450만 달해 넷마블, 카카오엔터와 파트너십… K팝 버추얼 아이돌 결성

에게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SKT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유일하게 ‘라이브 영상 송출’ 기능을 선보이며, 지난 12월부터 전시회 랜드를 오픈하고 ‘어반브레이크 2021’, DC 코믹스 ‘저스티스 리그’ 등 메타버스 특별 전시회를 선보였다.

또 지난해 8월 성균관대학교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제1회 세계 성균관글로벌일장’ 대회를 ‘이프랜드’에서 개최했으며,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된 갤럭시Z폴드3·플립3 출시 기념 ‘삼성 갤럭시 팬파티 폴더블데이’를 개최했다.

SKT는 앞으로 이프랜드 내에서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메타버스 대중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KT는 지난해 6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9개와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메타버스원팀’을 결성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게임사들, 메타버스 투자 확대

게임업체들은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섰다.

넷마블은 최근 개발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가 설립한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메타휴먼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유상증자를 통한 제3차 배정 방식으로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의 신규 발행 주식 8만주를 인수했다. 양사는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K팝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올해 중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넷마블의 개발 자회사인 넷마블에프앤씨는 광명역 인근에 메타버스VFX연구소 설립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준공될 VFX 연구소는 메타버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섹터와 크로마키, 전신스캐닝 등 메타휴먼 제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컴투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



SKT가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에서 K팝 스타들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K-POP 페스티벌 워크> 행사를 진행했다. /SKT



동료가 옆에 있는 듯 대화가 가능한 스피커셋. /LG유플러스가 유니티코리아와 손잡고 메타버스 사업 협력에 나선다. /LG유플러스



권준혁 NH농협은행장이 올 3월 오픈 예정인 ‘NH독도버스’를 배경으로 아바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